

“호탕하고 당당한 독립운동가 부조리 맞서는 신념 배웠죠”

이제훈, 영화 '박열' 진정성 있는 연기 눈길 ... 28일 개봉

“박열은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부에서 그들과 맞서 그들의 사상을 흔들어놓은 인물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잊힌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28일 개봉하는 영화 '박열'은 간토(관동) 대학살이 벌어졌던 1923년 당시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조선의 아나키스트 '박열'과 그의 동지이자 연인인 일본 여성 '가네코 후미코'의 실화를 그린 작품이다.

당시 일본은 무고한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박열을 일본 황태자 암살을 모의한 인물로 지목하고 대역죄인으로 단죄하기 위해 일본 법정에 세웠다. 일본의 계락을 눈치챈 박열은 그들의 끔찍한 만행에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스스로 황태자 암살 계획을 자백하고 사형까지 무릅쓰고 공판을 시작한다.

박열을 맡은 배우 이제훈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에 놀랐다. 호탕하고 당당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는 박열의 모습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나는 과연 세상의 부조리함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인가 스스로 많이 반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제훈은 자신에게 박열이라는 실존인물이 완벽히 투영되어진 진정성 있는 연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신념을 이해하기 위해 각종 사료와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한다.

“박열은 굉장히 기괴한 용맹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조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생각과 말로 내뱉는 것을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하는 인물이었죠. 누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고 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그 웃음을 통해 제국주의의 중심에 있던 일본인들을 조롱하고 당황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줬죠. 그런 그가 불과 스물두 살의 어린 나이였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제훈

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고 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그 웃음을 통해 제국주의의 중심에 있던 일본인들을 조롱하고 당황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줬죠. 그런 그가 불과 스물두 살의 어린 나이였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실존인물을 왜곡하거나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이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거나 넘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에서 옹골로 차려진 울분을 내지르면서 표현하기보다는 절제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제훈은 박열이라는 인물의 신념뿐 아니라 외모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분장을 하고 촬영 내내 밥까지 굶었다고 한다. 실제로 포스터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평소 이제훈의 모습과 매우 다르다.

그는 “제대로 자르지도 않은 우스꽝스러운 헤어스타일에 수염을 붙이고 분장했는데 첫 촬영 때 이준의 감독과 동료 배우들이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수염을 붙인 채 밥을 먹으면 떨어진 수염을 다시 붙여야 해서 촬영이 지연되기 때문에 촬영 내내 굶다시피 했다”면서 “감독에서 단식 투쟁하면서 말라가는 박열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한 달 반 동안 촬영하면서 살을 멀리하다 보니 6kg이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품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으로 언어를 꼽았다. 작품의 배경이 일본인 만큼 대부분의 대사가 일본어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하기 전에는 일본어를 전혀 몰랐다”는 그는 “정말 긴 대사를 하면서 감정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며 “대사를 숙지하기 위해 일본어 잘하는 동료 배우들이 녹음한 대사를 계속 귀에 꽂고 울조리면서 다녔다. 덕분에 작품이 끝난 지금도 대사를 줄줄 읊을 수 있다”며 웃었다.

연극·영화계 대모 윤소정 별세

배우 윤소정(사진)이 지난 16일 지병(폐혈증)으로 인해 별세했다. 향년 73세. 1944년 서울생인 그는 영화감독 윤봉춘과 고등학교 연극반 교사였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오빠 역시 영화 ‘뽕’과 ‘장군의 아들’ 시나리오를 쓰고 ‘살아리랏다’를 연출한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윤삼육이다.

1964년 중앙방송(TBC) 1기 탤런트로 본격 배우 생활을 시작했지만 1966년 6월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극단 자유의 연극 ‘따라지의 향연’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주로 연극무대에서 활동했다.

이후 극단 자유와 산울림, 뿌리, 물리 등에서 활동하며 50년간 무대를 지켰다. 중견 여배우들이 전형적인 어머니 역할을 주로 했던 것과는 달리 개성이 강한 선 굵은 역할을 맡았으며 역할 때문에 ‘불륜 전문 배우’로 불리기도 했다.

출연작으로는 ‘산불’, ‘초분’, ‘부도덕 행위’로 체포된 어느 여인의 증인, ‘신의 아그네스’ 등이 있다. 연극은 지난해 7~8월 명동예술극장 무대에 올랐던 ‘어머니’가 마지막 작품이다.

동아연극상을 두 차례 수상한 것을 비롯해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인기상, 서울공연예술제 개인연기상, 이해람 연극상, 대한민국 연극대상 여자연



기상, 히서연기상 올해의 배우상 등을 받았다.

연극 외에도 ‘대방’, ‘잘했군 잘했어’, ‘내 딸 꽃님이’ 등 다수 TV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최근에는 사전제작이었던 SBS TV ‘엄격적인 그녀’에 자혜대비역으로 출연했다.

영화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1997년 ‘올가미’에서 아들에 집착해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광기 어린 시어머니 역할을 주목받았다. 이후 ‘왕의 남자’, ‘이재수의 난’,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에 출연했고 2011년에는 영화 ‘하루’로 대종상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1976년 배우 오현경과 결혼했으며 역시 배우로 활동하는 딸 오지혜와 함께 배우 가족으로도 유명하다.

장례는 대한민국연극인장으로 치러진다. 영결식은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엄수된다.

연합뉴스

윤손하, 아들 학교 폭력 논란 몸살

“드라마 하차” 요구 봇물

배우 윤손하(42) 측이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소속사 씨엘엔컴퍼니는 “최근 ‘SBS 8뉴스’에서 보도된 초등학생 폭력 기사 관련으로 걱정을 가져 죄송하다”면서도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르다. 악의적으로 편집돼 방송으로 나간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SBS는 전날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구

타한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과 부모의 주장을 바탕으로 가해자 중 재벌그룹 총수의 손자, 유명 연예인의 아들 등이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한편, 윤손하가 출연 중인 KBS 2TV 금토드라마 ‘최고의 한방’ 측은 윤손하의 하차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드라마 시청자들은 윤손하를 드라마에서 하차시켜야 한다는 글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토크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그레이트 지리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50 UHD 한국의 유산	00 살림하는남자들 (재)	50 빛날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쌤. 마이웨이 (재)	00 MBC 정오 뉴스 2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링 55 KBC 특집 파워인터뷰
1	0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팔도밤산스페셜 (재)	0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험대 2 50 파워배틀 와치카 (재)	1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험대 2 50 파워배틀 와치카 (재)	35 위대할 유산 55 닥터 365
2	00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20 텔레몬스터 25 토크?북!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	00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3	30 101세의 프로젝트 (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별별머느리	30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엄격한 그녀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로봇극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쌤. 마이웨이	00 파수꾼	00 엄격한 그녀
11	00 KBS 뉴스라인 40 월요기획	10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민주주의 꽃이 피다 스페셜	10 초인가족 2017
12	3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 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하하랜드 스페셜	20 나이트라인 50 고향전문록 스페셜

EBS1

05:00 윤초보 영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00 요술 상자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06:00 한국기행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20 우주탐험자 셋	21:3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35 모피와 친구들	21:50 EBS 다큐 프라임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코코콩 3	22:45 엄마를 찾자마
- 마루의 어드벤처	(축적 육개장)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3:35 까칠남녀
07:30 로보카 폴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두다다콩(재)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07:45 총동! 슈퍼원스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24:30 세계의 드라마
08:00 당동당 유치원 1~2	- 마루의 어드벤처	17:15 엄마 까투리	(차일드후즈 엔드 - 지배자)
08:30 꼬마버스 타요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17:30 플라워링 하트(재)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 한국에 신다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2:40 평등채널(재)	18:00 생방송 퓌! 보니하니 1~4	
	12:45 과학 다큐 비온드 (재)	19:00 강철소년대 파이어보	
	13:40 엄마를 찾자마(재)	19:30 EBS 뉴스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9일 (음 5월 25일 丁丑)

子	48년생 상서로운 빛이 비치니 길한 조짐으로 봐도 된다. 60년생 징후가 좋으니 분명히 길사가 일어날 것이다. 72년생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경사가 있겠다. 84년생 계획은 좋지만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아. 행운의 숫자 : 60, 05	午	42년생 자체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 54년생 속임수에 넘어가면 사고 나게 되어 있다. 66년생 방해자나 가벼운 장애물이 보인다. 78년생 오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90년생 행한 만큼에 비례해서 실리가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62, 35
丑	49년생 매우 구체적인 아이디어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라. 61년생 어려움은 보이지만 맞서 볼 만한 게임이다. 73년생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 85년생 군사에 있어서의 간사한 죄를 꺼리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97, 31	未	43년생 중요한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55년생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행할 일이다. 79년생 누적된 패단을 해소할 수 있는 작기이다. 91년생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리라. 행운의 숫자 : 66, 18
寅	50년생 상대의 농담 속에는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62년생 당연한 감응이 있겠다. 74년생 초심대로 행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86년생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원할해질 수 없다. 행운의 숫자 : 09, 53	申	44년생 기쁨은 짧고 아쉬움은 길 것이다. 56년생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겠다. 68년생 누적인 모순이 병폐로 드러나리라. 80년생 객관화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하므로 아무런 쓸모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64, 57
卯	51년생 반겨들더라도 반드시 정도를 걸어야만 한다. 63년생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겠다. 75년생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에 충분하다. 87년생 알뜰한 생활 자세가 견고한 삶의 기반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5, 41	酉	45년생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이 관망은 편이다. 57년생 문제점이 많으므로 재설계해야 할 처지라고 볼 수 있다. 69년생 발상은 좋으나 침묵하고 있다면 무의미하다. 81년생 여건이 갖춰져 가고 있는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19, 70
辰	52년생 재미있게 되어가는 형세로다. 64년생 잠시 주춤했다가 본래대로 진입하리라. 76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잘 따져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8년생 코스를 이탈하면 고생길만 활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54, 20	戌	46년생 재복이 자라하니 진중하게 대응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58년생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니 가볍게 여기지 말고 포착할 준비를 하자. 70년생 갑자기 사라지리라. 82년생 당기기를 반복하다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28, 54
巳	53년생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가 따로 있다. 65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성숙한 열매가 맺는 면모이다. 77년생 기득권을 인정하고 대세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89년생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유익하리라. 행운의 숫자 : 45, 92	亥	47년생 불만하던면 수정하거나 정리해버려도 무리가 없다. 59년생 지극히 상대적으로 작용하게 되리라. 71년생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다. 83년생 구조가 튼튼하고 합리적인 체계이다. 행운의 숫자 : 91, 0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